

광주 중심상업지구 용적률 갈등 언제까지...

광주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오늘 재표결... 무기명 진행 광주시·시민사회단체, 부결 촉구... 주거환경 악화 초래 등 우려

광주시의회가 30일 중심상업지구 내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함에 따라 광주시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333회 임시회 폐회일인 30일 광주시가 재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 조례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표결은 광주시의 재의에 따른 표결이어서 무기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광주시의회의 설명이다.

총 23명의 제적의원 중 16명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안은 가결된다. 8명 이상이 반대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원안가결 방식이 아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하거나 보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의에 따른 심의라는 점에서 시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조례안은 바로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의회는 지난 23일 정책토론회에 이어 비공개 간담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인회 관계자, 시 담당 국장, 시민사회 단체 등이 시의원들과 조례안을 두고 찬반 입장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라는 점에서 8명 이상의 반대표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는 부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안은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부작용으로 인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광주가 앞으로 합차게 날아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방안의 제안을 검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심도 있는 토론회 절차를 거쳐 찾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25개 시민단체 모임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

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부결을 촉구했다.

단체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면서 "광주 도시 공간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 없이 중심상업지역만 폭집어서, 그것도 주거용적률만을 높이는 본 개정안의 불합리함과 특혜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현 용도용적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제대로 된 검토 없는 잘못된 대응은 부작용을 키울 뿐"이라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이번 조례는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대책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명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대책'이다"고 주장했다.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는 이미 개발 완료돼 도심 쇠퇴와는 관련이 덜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이 필요 없는 곳이고 원도심 중심상업지역인 동구 충장동과 인근 북구 임동은 현재 북동재개발, 누문동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도 인구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라는 점에서도.

단체는 "용적률 상향보다는 지역 전체를 아울러 특별상업지역의 특색에 맞는 개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면서 "머리를 맞대고 광주공동체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주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숲속의 여인' 망태버섯 장성군 남창계곡 등산로 인근 숲속에서 29일 특이한 형태의 '망태버섯'(Dictyophora indusiata)이 모습을 드러냈다. 노란색 망사 처마를 두른 듯한 독특한 외형으로 '숲속의 여인'이라 불리는 망태버섯은 고온다습한 여름철 짧은 시간 동안만 자생하는 희귀 균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의회, 시 추경안 지방채 발행 예산 66억원 삭감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 예산도 삭감... 시교육청 추경안은 원안 가결

광주시의회가 2025년 광주시 1회 추경추경정예산안 중 지방채 발행 예산 66억원을 삭감했다.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 예산도 삭감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무산됐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주시 본예산 7조6043억원 대비

40847억원(6.4%) 증가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광주시는 4807억원 증액한 예산을 제출했으나, 지방채 전환 예산 2건(문화전당-월봉서원 문화기반 구축 2단계 37억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29억원) 총 66억원 규모의 세입 예산을 삭감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105억원가량을 추가로 확보되면서 추경안은 시 제출안보다 40

억원 증가해 예결위를 통과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추진된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 사업 예산 10억 5000만원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세출 예산도 예결위에 서도 삭감됐다.

다만 광주시교육청이 1026억원 증액해 제출한 2조9778억원의 추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오는 30일 제 333회 임시회 본회의에 처리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직 안정·전문역량 강화...전남도, 62명 인사

전남도는 안상현 나주 부시장을 전남도 도민안전실장(2급)으로, 김정섭 기획홍보담당관을 환경산림국장(3급)으로 각각 승진 발령하는 등 국장급, 부단체장, 준국장·과장급 등 6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7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명단 21면>

승진인사는 전문성과 업무연속성, 업무추진성과 등 직무역량과 도정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했고 전보인사는 조직 안정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화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이번 인사로 조대정 고흥부군수가 정책기획관으로, 김기홍 광양부시장이 전략산업국장, 정현구 무안 부군수가 에너지산업국장, 정광산 담양부군수가 보건복지국장으로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전남도는 또 사군 부단체장에는 지역과 현장을 이해하고 정책 추진력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조석훈 정책기획관이 목포부시장으로,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나주부시장, 김정완 광양만권

투자유치본부장은 광양부시장으로 발령났고 오수미 광양만권청 행정기획부장이 구례부군수, 양국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고흥부군수, 노영환 문화예술과장은 장흥부군수로 가게 됐다.

또 박희경 인구정책과장이 전남도 최초 여성 비서실장 임무를 맡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전남도 신임실국장 프로필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지방고시 출신으로, 나주 부시장을 지내다 도민안전실장으로 승진, 발령났다. 꼼꼼한 일처리로 정평이 나왔다. ▲순천(58) ▲나주부시장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환경산림국장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업무에 두루 반영한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역할을 맡게됐다. ▲장성(59) ▲기획홍보담당관 ▲영광부군수
 민일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기술직으로 꼼꼼한 일 처리 능력을 갖췄다. 산업 위기 상황에서 광양만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할을 맡았다. ▲나주(58) ▲비서실장 ▲영암부군수
 김차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기업도시담당관 등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지방에 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막중한 역할을 맡게됐다. ▲광양(58) ▲해남 부군수 ▲기업도시담당관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스데 해볼래?
[병원 임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